

51. 너희들 자신에게 정직해지고, 너희들의 동기를 살펴보아라...

나의 거울로 보아라.

2015.04.18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 나는 오늘 밤 정직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너희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직함. 너희들 모두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영역들이 있어. 만약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이야기들을 꺼내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너희들이 아직 죄를 고백하지 않은 영역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신부들인 너희들에게 다시한번 확인하라고 요청해.

과거에 살아남기 위해 너희들은 특정한 것들을 너희들 자신에게서 숨겨왔어. 왜냐하면 이것은 보기에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야. 하지만 너희들은 나에게서 숨길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 내 사랑들아, 나는 이미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알고 있어. 나는 너희들과 함께 그것들을 다루고 싶고 너무 고통스럽고 불편한 것들을 숨긴 너희들의 깊은 내면에 있는 죄책감의 짐을 덜어주고 싶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절대로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반드시 정직함을 기반으로 해야해. 너희들이 보기를 거부하는 것을 나는 완전하게 만들 수 없어. 너희들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반드시 너희자신에 대한 진실을 기꺼히 인정해야해. 너희들은 상상 이상으로 아름답고 그것에 대해 나의 마음을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이 깊고 어두운 비밀들과 고백하지 않은 죄들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의 냄새를 풍겨.

이것은 또한 너희들이 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유야. 너희들이 직면하기에는 너무 어두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어. 내 앞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보여.. 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전에도 이 모든 것들을 보았어. 아무도 스스로를 악하다고 여기고 싶지 않아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악한 생각과 행동을 숨겨. 심지어 그들 자신들로부터도. 그리고 그들 자신을 커버하기 위해 변명을 대거나 이야기를 만들어.

내 사랑아, 나에게 와서 이 죄들을 없애달라고 간구해라. 나의 은혜가 너희들의 육체를 치유할 수 있는 표면으로 그것들을 가져오게해달라고 나에게 간구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더 이상 절대로 그것들에대한 짐을 지지 않아도 될 거야.

예를 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마땅히 해야할 방식으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변명해. 이것을 한번 살펴보자. 쇼핑하고,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TV쇼를 보고, 45분 동안

친구와 이야기하고, 너희들의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가고,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베란다에 앉아서 저녁에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이것을 분석해보자. 너희들은 너희들의 육체의 필요들을 제공하고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시간을 만들었어. 너희들은 너희들의 감정들을 쉬게하기 위하여 긴장을 풀고 오락을 즐길 시간을 만들었어. 너희들은 친구들이 너희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털어놓거나 혹은 너희들의 승리들과 실패들을 나눌 시간을 만들었어. 너희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스타일리시하고 멋지게 보이게하려는 시간을 만들었으며, 친구들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만들었어.

이것의 진실은 무엇이며, 이 예시들에서 도출한 결론은 무엇이야?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들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내가 찾고 있는 정직한 진실이야.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에서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위해 시간을 할애해.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을 즐겁게 하기위해 일하고, 돈을 벌고, 쇼핑하고, 돈을 사용하고, 심지어 교회에 갈때도 이러한 것들이 너희들에게 중요해. 하지만 나와야의 관계는?

(클레어) 주님..

(예수님) 이야기해라.

(클레어) 저는 매일 해야할 목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목록은 많았어요. 만약 제가 그 목록에 있는 모든 것들 혹은 대부분의 것들을 다 이루지 못했다면, 저는 실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에요. 저는 어느날 주님께서 “너는 야망의 영을 가지고 있어” 라고 저에게 말하실 때까지 저는 매우 기쁘지 않았고 좌절하였어요. 이 영은 기대치를 제시했고 저는 그것을 하루 안에 다 끝내도록 목록을 작성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체력수준과 시간을 초과하였고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는 밀어붙여야했어요. 저는 제 목록에 있는 일을 끝내야하는 시간을 빼앗아갈 누구든 어떤 것이든 밀어내야했어요. 그래도 결국에는 제가 다 끝내지 못한 것들이 항상 남았어요.

그 목록에 있는 모든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나 혹은 세상에서 온 것이었어요. 물론 기다릴 수 없는 일들도 있지만, 저는 부엌에서 제빵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그냥 빵을 살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최고는 아니더라도 정말 좋아야했기 때문에 저는 제빵을 해야했어요. 어떤 것들을 하는것에 있어서 쉬운 방법들이 있고,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게 하는 어려운 방법들이 있어요. 저는 항상 더 까다로운 방법들을 선택하였어요. 아마도 이것의 죄의 뿌리는 자만심이 있을 것이에요. 그냥 최고여야만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절대로 충분히 가지지 못하였어요. 저는 지치지 않았거나 모든 일을 서둘러 끝내도 되지 않아야 될 때가 절대로 없었어요. 저는 아침에는 나갈 준비를

하느라 바빴고 저녁에는 녹초가 되었어요. 저는 주님께서 더 많은 기도들 하도록 저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저의 세상적인 즐거움들과 의제들에 묶여있었고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제 뜻은 주님과의 함께하는 정말 상당한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어느날 주님은 저의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셨어요. “클레어, 너는 나를 위한 시간이 없어.”

저는 주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주님을 위한 시간이 없다구요? 휴.. 왜그렇지? 주님께서 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분이신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니었고, 세상과 관련된 백만가지 다른 일들이 더 중요했어요.. 운동, 입을 옷 고르기, 머리하기, 메이크업을 찾아보고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기, 다크 초콜릿이 가장 많이 들어간 초콜릿 케이크 만들기, 광택이나고 빛나게 세차하기, 식물들을 다시 화분에 옮기고 기르는 방법에 대한 세부정보를 찾아보기, 건강문제를 확인하고 어떤 특정 비타민들이 필요할지 알아보기. 저는 이 목록을 계속해서 끝없이 말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직한 진실이었어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저의 삶을 드렸고, 주님을 위해 살았지만, 뒤돌아보면 제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었어요. 네, 저는 기도시간을 가졌었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는 것과 같은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이 가졌던 선물들과 사역들에 목말라있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질투를 느꼈고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왜 나는 저렇게 성공하지 못할까?’ 저는 심지어 주님께 저를 사역에 맡겨주시면 제가 하는 불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도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셨던 것은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익숙한 것들을 버리는 것을 보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헛된것들에 불과했어요. 주님은 제가 주님이 저에게 모든 것이고 제 삶에서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셨어요.

저는 저의 질투가 게으름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기 시작했어요. 저는 성공하기위해 노력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의 삶은 쓸데없는 일들, 불에 타버릴 모든 일들에 너무 도취되어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벨크로처럼 저의 머릿속에 달라붙은 어떤 말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질투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가진 것을 보았기 때문이고,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당신은 그것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준으로 자신을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저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제가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요? 제 삶의 시간은 쓸데없는 일들로 사용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날, 저는 휴거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어리석은 처녀 중 하나라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구요? 저의 직감을 깊이 괴롭히는 느낌이 들었고, 그것은 어리석은 일들에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핑계를 댔어요. '그것은 중요해! 그것은 반드시 해야만해! 나는 그것을 해야해.' 하지만 그 괴로움은 사라지기를 거부하였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님을 위한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셨을때.. 저는 휴거의 현실을 보았고 그것이 저의 경종을 울렸어요. 제가 이 길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갔다면 기름이 바닥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어요. 그때가 제가 변했던 때예요. 저는 주님께서 제 삶을 지배하실 수 있도록 세상적인것에 대한 기대와 기준을 낮추었어요.

(예수님) 그리고 이것이나 나의 신부들인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야.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 너희자신이 정직하기를 바라. 너희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에 대해 재평가하여라. 쓸데없는 일들과 허영심이 너희들에게서 나를 빼앗지 않도록 너희들의 기대치를 낮춰라. 이것은 매우 미끄러워. 잘못된 방향으로 한 발짝만 가도, 잘못된 모든 것들이 올라타.

(클레어) 주님, 저는 몇년전에 제가 교회를 가기위해 준비할때는 어울리는 옷, 예쁜 옷, 예쁜 악세사리, 예쁜 지갑, 예쁜 신발, 예쁜 화장을 해야 했다는 것을 기억해요. 한 가지를 준비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그 뒤를 따라요.

반면에 만약 제가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의식하지 않았다면 저는 매주 똑같은 단순한 옷을 입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내면의 저는 진정으로 찬양할 준비가 되어질 것이고 패션쇼에 관심이 없어질 것이예요. 남성들에게는 멋진 넥타이, 멋진 셔츠, 멋진 자켓, 멋진 바지, 멋진 신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오는 모든 남성들에게 인상을 주기위해 반짝이는 깨끗한 새차를 타고 와요. 저희는 그것들에 빠져있었어요.

(예수님) 이러한 나의 신부들의 가장 슬픈 부분은, 너희들의 행동이 너희들이 맺을 수도 있었던 열매를 질식시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야. 정말로 이 나라에서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을 정도까지 교회들에 가시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나의 움직임을 고정시키는 문제는 사회적 수용성이야. 잘못된 때에 올바른 옷차림, 올바른 외모, 올바른 행동. 나는 숨을 쉴 공간이 없어.

그래서 내가 정직해지라고부르는 거야. 새로운 수준의 정직함. 이 나라가 전쟁중일때는 정직함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야.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개인적인 거룩함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지금 나의 교회는 사회적인 기준과 사람들의 눈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에 묶여있어.

나의 신부들아, 나의 아름다운 신부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간청해. 너희들의 동기들을 살펴보아라. 너희들이 가져야 할 동기는 오직 하나야. 나에게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외에 다른 동기들은 불순하며 순결함은 나를 분명히 보고 듣는데 필요한 것이야.

너희들 자신에게 물어봐.. “내가 똑똑해보이고 그들에게 인상을 주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을까?” 혹은 “내가 무대를 위해서 이런 옷을 입었나?” 혹은 “교회에서 남성들의 시선을 받기 위해서 운동하나? 남편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육체적인 기준으로 남편을 찾는다면 너희들은 육체적인 남편과 육체적인 결혼을 하게 될 거야.

너희들 자신에게 물어봐..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추한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이리저리 전화를 했을까?” 혹은 “나의 영향력과 지위를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자원하였을까?” 혹은 “사람들이 나를 좋게 생각하기를 원해서 내가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였을까?” 혹은 “주차장의 사람들의 시선을 얻기 위해서 새차를 샀을까?”

남성들 그리고 여성들 너희들 모두의 동기들을 살펴보아라. 너희들이 어떤 것을 하는 그 이유가 철저하게 나를 사랑해서이고 다른 이유가 없는지를 살펴보아라. 만약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좋게 여겨진다면 너희들의 등불에서 오일이 새어나가고 있고 등불이 꺼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나는 보장해.

나는 이번주에 너희들의 동기들에 대해 죄의식을 심어줄 거야. 나는 너희들을 방해하고 너희들이 내 안에서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태도와 습관들을 드러낼 거야. 너희들이 하는 일을 정말로 왜 하는지 알게 되면 어떤 것들은 너희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어. 하지만 이것은 너희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야. 이것은 너희들의 웨딩드레스에서 더 많은 얼룩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야. 이것은 너희들을 회개하게 하는 것이야. 그리고 만약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희들은 자신이 얼마나 낮은지를 알게 될 거야. 이것은 유익한 것이야. 나는 진실로 겸손한 사람들을 높이지만 자만하는 사람들을 낮춰.

나의 신부들아, 너희들 자신에게 정직해지고 너희들이 그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 핑계를 대거나 진실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매번 회개하고 이 세상적인 태도와 자세를 버릴 수 있도록 나의 도움을 구해라. 나는 불로 연단한 황금처럼 너희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가장 좋고 영원한 유익만을 나의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나와 협력해라. 나는 이제 우리들의 결혼식 날을 준비하기 위해 나와 협력할 용기로 너희들을 축복해.